



### 국가별 메달 순위 (28일 19시 30분)

순위	국가	금	은	동	합계
1	중국	89	63	44	196
2	일본	43	37	59	139
3	대한민국	32	38	44	114
4	인도네시아	24	19	29	72
5	이란	17	15	15	47
6	대만	13	13	19	45
7	북한	12	6	7	25
8	태국	9	10	33	52
9	인도	8	16	21	45
10	카자흐스탄	7	8	29	44
28	코리아	1	0	2	3

### 주목! 오늘의 명승부 (한국시간)

- 축구**  
남자 4강 한국-베트남 ▶ 오후 6시
- 유도**  
여자 48kg · 52kg급  
남자 60kg · 66kg급 ▶ 오전 11시
- 배구**  
여자 8강 한국-인도네시아  
▶ 오후 6시30분
- 하키**  
여자 4강 한국-일본 ▶ 오후 7시30분
- 정구**  
남녀 단식 8강 · 결승 ▶ 오전 11시  
혼합 복식 예선 ▶ 오후 4시
- 탁구**  
혼합 복식 64강~8강 ▶ 낮 12시
- 육상**  
남녀 20km 경보 ▶ 오전 8시  
남자 200m 결선 ▶ 오후 9시5분 등
- 사이클**  
남자 스프린트 예선 ▶ 오전 11시  
여자 트랙오픈 예선 및 결선 ▶ 낮 12시 등
- 스쿼시**  
여자 단체 예선 한국-필리핀  
▶ 낮 12시  
남자 단체 예선 한국-일본  
▶ 오후 2시30분
- 수영**  
아티스틱 팀 예선 및 결선  
▶ 낮 12시  
수구 남자 예선 한국-싱가포르  
▶ 오후 4시30분 등
- 카누**  
카약 남자 K5 500m 예선 및 준결승  
▶ 오전 10시50분 등
- 승마**  
장애물 비월 ▶ 오전 10시
- 롤러스포츠**  
남녀 스트리트 결선  
남녀 파크 결선 ▶ 낮 12시

## ‘슈퍼 킬러’ 황의조 ‘백의종군’ 손흥민 | 베트남과 외나무다리 승부, 네 자신을 믿어라

# ‘황금 콤비’ 황의조·손흥민, 골 파티 한번 더!

황의조, AG 5경기서 8골 감각 절정  
손흥민, 환상의 킬패스로 특급 도움  
운명의 베트남전 형님들이 해결사로

김학범(58)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29일 오후 6시 인도네시아 보고르의 파카사리 스타디움에서 박항서(59) 감독의 베트남과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AG) 결승진출을 다툰다. 나란히 8강에서 연장혈투를 펼친 두 팀은 하루 휴식을 취한 뒤 4강전에 나선다.

외나무다리 혈투, 김 감독의 믿을 만한 와일드카드(24세 이상)로 차출한 ‘폼격의 리더’ 손흥민(26·토트넘 홋스퍼)이다. 올 초 U-23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김 감독이 대한축구협회에 가장 먼저 요청한 부분이 손흥민의 AG 차출이었다. 본인의 확고한 AG 출전 의사를 확인한 뒤 “토트넘과의 협의를 최대한 빨리 끝내 달라”고 재촉해 지금에 이르렀다.

AG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강제 차출 규정이 없어 소속 팀의 협조가 필수다. 부지런히 서둘러 대회 출전은 물론, 합류시기도 앞당길 수 있었다. 손흥민은 키르기스스탄과의 대회 조별리그 2차전(1-0)에서 결승골을 넣었다. 27일 우즈베키스탄과의 8강전(4-3 승)에서는 도움 두 개를 올렸다. 다용도 공격 수로서 득점력 자체는 만족스럽진 않다.

그래도 존재감은 확실하다. 상대 수비라인을 끌고 다니며 구석구석 공간을 창출하고 주변에 기회를 제공한다. 깊숙한 수비가담도 인상적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후배들을 독



남자축구대표팀의 황의조(뒤)가 27일 브카시의 패트리엇 스타디움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과의 8강전에서 선제골을 넣은 뒤 손흥민과 께안으며 활호하고 있다.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며 만점활약을 펼치고 있는 둘을 앞세운 대표팀은 29일 베트남과 결승진출을 놓고 4강에서 격돌한다. 브카시(인도네시아) | 뉴스

려하고, 경기 후에는 상대를 격려해 ‘AG 대표 매너남’이 됐다.

연일 무력시위를 이어가는 스트라이커 황의조(26·감바 오사카)도 항상 고맙다. 실력으로 진가를 뽐냈기에 더 반갑다. 지난달 16일 AG대표팀 엔트리가 발표되자마자 갖가지 조롱이 쇄도했다. 특히 황의조를 뽑은 이유가 성남FC에서 사제의 연을 맺은 김 감독과 인맥에서 비롯됐다는 비난은 황당하기까지 했다. 성남의 모 시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김 감독과 황의조, 한국축구 전체를 ‘적폐세력’으로 몰아갔다.

그런데 모르는 선수를 뽑을 이유가 없었다. 단기간, 손발을 맞출 시간이 짧은 대회를 위해 지도자가 낯선 자원을 선택하는 건 무리가 있다. 더욱이 김 감독은 황의조를 체크하기 위해 세 차례나 일본을 찾았다.

김 감독은 “나부터 비주류였다. 지연·학연에서 밀렸다”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스승에게 큰 짐을 안긴 황의조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비난을 위한 비난, 조롱 섞인 돌팔매질에 부담은 컸다.

평가전 없이 돌입한 실전모드, 황의조는 대회 조별리그부터 헤트트릭을 기록한 우즈베키스탄전까지, 5경기 8골을 뽑았다. 바레인과의 조별리그 1차전(6-0)에서도 3골을 넣은 그는 ‘와일드카드의 전설’로 남았다. 남자 전 연령을 통틀어 한 대회, 한 선수의 헤트트릭 2회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최전선과 2선에서 불을 뽐낼 공격 콤비가 이를 환상의 히토니는 베트남 격파의 핵심이다.

남정민 기자 yoshike3@donga.com

## 실점 제로 베트남 뚫을 ‘새 공격 루트’ 숙제

### 베트남과 4강전 필승 해법

베트남 스리백 탄탄 5경기 무실점  
대부분 스피드·체력 앞세운 역습  
김문환·김진야 수비 밸런스 중요

아시안게임(AG) 2연패에 도전하는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이 29일 오후 6시(한국시간) 인도네시아 자와바랏주 보고르 치비농의 파카사리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18자카르타-팔렘방AG 남자축

구 4강전에서 베트남과 격돌한다. 한국은 U-23 대표팀간 역대 전적에서 4전승을 거두고 있다. 가장 최근의 대결은 올해 1월 중국에서 열렸던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이었다.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베트남을 만나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2-1로 역전승했다. 이 대회에서 한국은 4위에 그치고 베트남은 준우승을 차지해 성적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 ●허물어야 하는 베트남의 수비벽

베트남은 이번 대회 8강전까지 5경기를 치러 모두 승리를 챙겼다. 조별리그에서 21세 이하로 구성됐지만 만만치 않은 일본

을 1-0으로 꺾고 조 1위를 차지했다.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5경기 연속 무실점이다. 베트남은 스리백을 기반으로 한 두터운 수비벽을 앞세워 단 1골도 허용하지 않았다. 최종 수비와 미드필드 라인의 간격이 매우 촘촘하다. 상대 입장에서는 공격 작업을 할 공간이 많지 않다. 베트남을 상대하는 팀들이 득점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이 결승에 오르기 위해서는 밀집 수비를 뚫어야 한다. 경기 시간이 흘러갈수록 급해지는 팀은 아무래도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는 한국이다.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베트남의 수비벽을 허물 수 있는 확실한 공격 루트를 만들어내야 한다.

#### ●밸런스 유지가 필수인 수비라인

경기는 전체적으로 한국이 지배할 가

능이 크다. 베트남은 시리아와의 8강전에서도 수비 때 골키퍼를 제외한 10명이 모두 수비 지역으로 내려서는 모습을 보였다. 베트남은 주로 역습 형태로 공격에 나서는데 선수들은 개인기보다 스피드와 체력이 좋다. 공간으로 불을 차 놓고 경합해서 불을 따낸 뒤 숏까지 이어가는 장면을 자주 연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수비수들은 동료들이 공격할 때 상대 역습에 대비한 밸런스 유지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좌우 측면을 담당하는 김문환(23·부산 아이파크)과 김진야(20·인천 유나이티드)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 명이 공격에 가담하면 다른 한명은 조금 더 수비라인 쪽으로 자리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수비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상대 역습을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 손흥민 金 도전·박항서 매직...외신도 한국 열풍

한국 축구가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AG)에서 여러모로 이목을 끌고 있다.

손흥민(26·토트넘)은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그라운드를 누비면서도 연일 전 세계 외신들을 들썩이게 만든다. 아시아권 국가들만 참여하는 AG에 대해 유럽 주요 외신들의 관심은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손흥민의 동향만

큼은 주요 소식으로 꼽힌다. 대회 금메달 획득에 뒤따르는 병역 면제 혜택 때문이다.

풋볼 런던, ESPN 등의 주요 외신들은 27일 인도네시아 브카시의 패트리엇 스타디움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과의 8강전이 끝난 뒤 한국의 4-3 승리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다. “한국의 준결승 진출로 손흥민과 토트

넘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는 것이 외신들의 요점이다.

베트남 매체들은 사상 첫 AG 4강 진출을 가능케 한 ‘박항서 매직’에 푹 빠져있다. 박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대표팀은 27일 8강에서 시리아를 1-0으로 꺾고 준결승에 올랐다. 이에 베트남 주요 매체들은 박 감독과 대표팀의 소식들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가득 채웠다. 베트남 거리에 국민들이 몰려나와 자축 세레머니를 펼치는 등의 열광적인 현

분위기도 함께 전했다.

우승으로 가는 길목에서 벌어지는 베트남과 한국의 4강 맞대결은 조미의 관심사다. 박 감독과 한국 김학범 감독의 친밀한 관계도 집중 조명되고 있다. 박 감독은 VN 익스프레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조국을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지금 베트남의 감독이다. 준결승을 위한 최선의 준비를 할 것”이라며 승리를 향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 김학범 vs 박항서 ‘운명을 건다’

### ▶1면에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도 감독 2년차인 2006년 박사 학위까지 받아 한국축구를 대표하는 ‘공부하는 감독’ 이미지를 남겼다. 쏘아보는 듯한 매서운 눈빛과 강한 카리스마, 탁월한 전략을 갖춘 그에게 팬들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를 오랫동안 이끈 명장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이름을 따 ‘학범슨’이라는 닉네임을 붙여줬다.

AFC U-23 챔피언십에서의 부진으로

경질된 김봉길(52) 전 감독의 후임을 찾기 위해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감독선임위원회 김판관(49) 위원장을 만났을 때, 김 감독이 무려 수십 페이지짜리 방대한 분량의 기술 분석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이 자료를 직접 접한 선임위원들과 협회 고위 임원들은 “김 감독은 (모든 후보군 가운데) 단연 압도적이었다. 준비된 감독이었다. 정말 대단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박 감독은 후배들에 대한 평가를 자제하는 편이지만 김 감독에게는 예외를 둔다. 틈날 때마다 지인들에게 “공부하고 연구

하는 친구에게 대한민국 A대표팀을 이끌 기회가 주어지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 솔직히 자신도 외로운 인생이었다. 2002한일월드컵에서 거스 히딩크(72·네덜란드) 감독을 보좌하며 4강 신화를 함께 한 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을 반향에서 보냈다. 히딩크 감독과 함께 한 과거의 이력과 베트남 주산물 쌀을 더해 ‘쌀딩크’로 불리며 사랑 받는 박 감독이 “인기는 금세 꺼질 거품”이라며 경계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승부는 승부다. 같은 감독의 입장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과는 별개다.

조별리그 2위(2승1패)로 토너먼트에 오른 한국은 이란에 이어 우즈베키스탄을 연장 혈투 끝에 제압했고 조 1위(3승)의 베트남은 바레인을 꺾은 뒤 시리아마저 연장전에서 물리쳐 ‘감독판 코리아’를 앞두게 됐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K리그 상대전적(정규리그·컵 대회)은 8승1무1패로 김 감독이 우위이고 객관적인 전력도 한국이 앞서지만 방식은 금물이다. AG 정상까지 두 걸음, 마지막 방점을 찍고 드라마를 완성시키려는 김 감독과 박 감독의 운명은 어떻게 열릴까.